

상품 구조보다 내재위험에 집중하는 감독 철학의 전환

- 자본요건 중심 감독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전 홍 규

GenRe 한국 대표
본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이 글은 특정 정책이나 감독방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업계 일원의 개인적 의견과 작은 사심이 담긴 시각임을 먼저 밝힙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과 관련한 비판적 보도들이 잇따르고, 이에 대응하는 감독기관의 움직임도 기사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감독의 철학에 보다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자본요건 중심의 해외 감독 사례

선진국 감독기관들은 IFRS17 이전부터 자본요건 중심의 감독 철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보수적인 준비금 산정 방식으로 간접적인 자본규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정교한 자본제도를 통해 내재위험에 초점을 맞춘 감독으로 발전했습니다. 과거 RBC 제도 하에서 캐나다의 경우 사망위험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준비금 산출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으며 감독 철학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최근의 해외 사례들은 아래와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유럽 (EIOPA - Solvency II)

- 내부모형을 허용하되, 데이터 검증(use test)을 충족하지 못하면 표준모형을 적용하여 높은 자본요건이 부과됩니다.
- 경험자료가 부족한 신상품은 자연스럽게 보다 더 강화된 자본을 요구 받습니다.
- 핵심은 ‘상품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검증’ 여부입니다.

■ 호주 (APRA)

- 신상품에 대해 Life Capital Standards(LPS) 하에 스트레스 가정을 적용합니다.
- 과거 장애소득보험(DII) 상품 이슈를 반영해 자본 상향을 유도하고 상품 구조도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 캐나다 (OSFI)

- LICAT 제도 하에 상품 구조 복잡성에 따라 자본을 계층화(capital layering)하고,
- 필요시 ‘add-on’을 통해 과소평가된 리스크를 보완합니다.

자본 중심 감독의 장점

● 감독의 효율성 제고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개별 심사를 반복하는 대신, 자본요건 중심으로 접근하면 감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혁신 유도

감독기관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보험사는 보다 창의적인 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보수적 접근 가능

장기보장 상품의 경우 미래 불확실성이 크며, 이로 인한 내재위험은 보수적인 자본요건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재조명

최근 논란이 된 치료비 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사전 자본요건 중심의 감독방향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감독기관이 일정 수준의 보수적 자본을 요구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상품이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확산되었을까요?

역으로, 충분한 자본을 갖춘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일까요?

반론에 대한 생각

물론, 이러한 방식에는 ‘자본 비효율성’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재보험은 위험의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자본 조정의 수단이 되고, 그 결과 소비자 보호도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결국 내재된 위험의 가격을 시장에서 정의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이 글이 자본요건 중심의 감독 철학이 보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재보험사 입장에서 사심이 없지는 않지만, 감독 방식에 대해 한 발짝 떨어져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